타인의 슬픔을 이해하는 것에 대하여

산문집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펴낸 평론가 신형철 조선대 문예창작과 교수

광주일보 연재 칼럼·문예지 기고 등 엮어 "타인의 삶 모르고 판단하는 것이 무지"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제도를 바꾸는 것이지만 사람들 관계에서는 정서적 차원에서의 도움이 변화를 견인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사람을 지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무지다. 타인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판단하는 행위가 바로 무지며, 무지 가운데 가장 큰 무지다."

영화에세이 '정확한 사랑의 실천', 산문집 '느낌의 공동체' 등으로 독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문학평론가 신형철(사진) 조선대 문예창작과 교수가 4년 만에 산문집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을 펴냈다.

이번 산문집의 키워드는 '슬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광주일보에 연재했던 '신형철 칼럼', '한겨레21'에 연재했던 '신형철의 문학 사용법' 등 일간지와 문예지에 발표했던 원고를 모아 엮은 것이다.

신형철 평론가는 강의와 연구, 글 쓰기로 바쁘다. 모처럼의 통화에서 연말까지 처리해야 할 일이 만만치 않다는 말에서 근황이 그려진다. 대학교수와 평론가의 주 업무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이기에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 한편으로 한국 문단에서 독자들이 선호하는 평론가 중에 한 사람이기에 이런 저런 원고를 소화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는 "그간의 글을 매만지며 글 다수를 관통하는 주제가 '슬픔'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타인의 슬픔'은 결코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슬픔을 이해하고 공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책에는 그의 전공 분야인 시와 소설과 같은 문학의 영역뿐 아니라 영화, 노래, 사진 등 다양한 작품을 접하면서 느꼈던, '온기'를 잃지 않으려 했던 저자의 열정이 담겨 있다.

언급했다시피 책의 큰 축을 이루는 것은 '슬픔'이다. 저자는 영화 '킬링 디어'를 통해 타인의 슬픔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들여다본다. 그러면서 "타인의 슬픔을 알 수 없지만 다른 이의 슬픔을 공부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언급한다. 책 제목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은 그러므로 "타인의 슬픔을 이해하는 데 실패할 것을 알지만 이해하기 위해 애쓰는 데서 오는 역설적 슬픔"이라는 것이다.

"'슬픔의 위안'(김명숙 옮김, 현암사, 2012)이라는 책이 있다.(중략) 이 책을 최상의 유려함으로 옮겨낸 번역자는 역자후기에서 자신이 20년 넘게 우울을 앓았는데 이 책을 번역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적고 있다. 어째서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위에서 말한 대로다. 저자인 론 마라스코와 브라이언 셔프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슬픔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제대로 앎' 그 자체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광주일보 2016년 6월 16일)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1부는 헤로도토스 '역사'에서부터 헤밍웨이, 박형준과 김경후의 시에 이르는 작품 속의 슬픔, 허무함, 상실을 읽어간다. 2부는 카뮈, 보르헤스, 권여선, 임철우, 박완서, 배수아, 김사과, 은희경, 김숨의 작품을 통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묻는다. 3부는 대통령 탄핵부터, 성소수자 문제, 용산참사, 희망버스 등 참여적 주제의 글이다. 마지막으로 4부는 '시'를 주제로 왜 시를 읽어야 하는지를 권하는 글을 묶었다.

이번 산문집에서는 그의 유려한 문체의 작품 해설 외에도 '문학관'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신 교수는 "비평가가 해야 할 일 가운데 신인 발굴, 당대 담론의 의제화 등도 있지만 비평문 자체가 독립적인 글로 설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칭찬하는 비평가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어떤 텍스트건 칭찬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칭찬할 수밖에 없는 텍스트에 대해서만 쓰고 싶다는 뜻"이라며 "진지한 예술가들은 정확하지 않은 칭찬을 받는 순간 자신이 실패했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정확한 칭찬은 자신이 칭찬한 작품과 한 몸이 되어 함께 세월을 견디고 나아간다"고 덧붙였다.

대구 출신으로 지난 2014년 조선대에 부임해 올해로 5년째인 그는 비평의 독자성과 미학성을 구현해온 대표적 평론가다. 임용된 그 해 광주에 이사를 온 때문인지 광주가 친근하다. "음식도 좋고 풍광이 좋은 것은 두말 할 나위 없다"면서도 "역사의 상처가 치유되지도 진실이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현재 그의 부인 신샛별 평론가도 같은 문학의 길을 걷고 있다.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광주대에 출강하는 부인이 가장 문학의 든든한 동반자라고 말하는 그에게서 부창부수(夫唱婦隨)의 앞날이 그려진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어썸오케스트라와 김냇과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저녁 광주 대인시장 인근에 자리한 '김냇과'에선 작은 음악회가 열린다. 이름하여 '도시락(樂)콘서트'. 굳이 공연장에 가지 않아도 1만원만 내면 도심에서 아름다운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콘서트는 미술과 음악이 어우러진 힐링의 무대였다. 우리 고유의 탈을 주제로 한 민중작가 윤만식(광주민예총 회장)의 미술 강연에 이어 브라스밴드 '센세이션' 팀의 금관 5중주 공연으로 꾸며진 이날 콘서트에는 100여 명의 관객이 참석했다. 올 2월부터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1막 연주와 클래식앙상블, 가곡 무대까지 다양한 장르로 진행된 여덟차례의 콘서트에 1000여 명이 다녀갔다. 덕분에 영무건설이 매입해 전시·공연장, 카페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리모델링한 옛 병원건물은 색깔있는 문화쉼터로 자리잡았다.

도시락 콘서트가 탄생하게 된 데에는 기획자 황혜연씨와 박헌택 영무건설 대표의 공이 컸다. 광주 광산구에서 (사)어썸오케스트라&콰이어(어썸오케스트라) 단장을 맡고 있는 황씨가 젊은 단원들의 활동무대를 마련해주기 위해 박 대표에게 상설콘서트를 제안한 게 계기가 됐다. 평소 문화에 관심이 많은 박 대표는 대관료 부담없이 음악인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공간과 운영(출연료, 무대세팅)지원을 약속했다.

황씨가 도시락 콘서트에 팔을 걷고 나선 건 단원들의 '일자리' 때문이였다. 그도 그럴것이 매년 많은 음악학도가 배출되고 있지만 정작 지역에서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는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유학까지 다녀온 젊은 연주자 가운데 일부는 음악을 포기하거나 '일'을 찾아 서울로 떠나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이 안타까웠던 그녀는 지난 2016년 젊은 음악인들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 뜻을 같이한 여태남 (주)일군토건 대표이사(어썸오케스트라 이사장)와 함께 다양한 장르의 전문 예술인들로 구성된 어썸오케스트라를 창단했다.

어썸오케스트라가 민간단체들의 부러움을 사는 건 매월 '고정적인' 보수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들의 '커리어'에 비해 부족한 액수이지만 70명의 단원에게 매월 일군토건이 지원하는 후원금 1000만 원으로 30만원에서 부터 7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단원들은 작은 공연에서부터 지자체의 축제, 민간기업의 음악회 등에 출연하며 예술인으로서의 미래를 키워가고 있다.

전국 최초로 청년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출범한 대전예술의 전당의 'DJAC 청년 오케스트라'와 서울 성북구가 민간오케스트라인 코리아W필하모닉과 손잡고 운영하는 '성북구립오케스트라'도 비슷한 맥락이다. 특히 작년 한해 '찾아가는 공연' 등 총 10회의 공연을 통해 청년음악가 수십 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DJAC 청년오케스트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모름지기 문화도시는 예술인들이 행복한 도시여야 한다. 척박한 삶에 지친 나머지 꿈을 포기하는 예술인들이 많다면 삭막한 도시로 변하고 시민들의 문화적 허기도 커진다. 그러니 문화로 먹고 사는 환경을 마련하는 건 지역의 몫이다. '문화적 일자리'는 곧 광주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지난 5월 첨단1휴먼시아아파트에서 진행된 공연.

스위스 희곡, 한국전통을 만나다

오늘 수완지구서 탈놀음 공연

스위스 극작가 뒤렌마크의 대표작 '노부인의 방문'이 한국의 전통놀이를 만나 새롭게 표현된다. 큰새프로젝트가 17일 오후 4시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신완마을 휴먼시아 7단지 앞에서 '2018 어울림문화 프로젝트:노부인야류' 공연을 펼친다. 이번 공연에서는 거리로 나온 광대들이 신명나는 놀이판을 만들어낸다.

이 작품을 이번 무대에서는 탈을 쓰고 펼치는 한국의 전통연희 들놀음의 형식으로 그려냈다. 1과장 '장님과장', 2과장 '노부인과장', 3과장 '보부상과장', 4과장 '흑범과장'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물질에 길들여져 본질을 보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풍자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의 070-7781-2357.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문화도시 광주 교육' 강좌 19일까지 수강생 모집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문화도시협의회가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광주를 만들고자 '생생하게 통하는 문화도시 광주 교육'(이하 생통교육)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한다.

'문화를 통한 도시 재생'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오는 24일부터 11월 9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3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생통교육 강좌로는 ▲24일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조용준 전 조선대교수) ▲26일 '마을과 문화, 도시재생'(민문식 광주남구 마을공동체협력센터 센터장) ▲31일 '폴리와 문화 도시재생'(유우상 전남대교수) ▲11월2일 '전통시장과 문화, 도시재생'(윤현석 컬쳐네트워크 대표) ▲11월7일 '문화와 도시재생, 광주의 현 주소와 미래'(안평환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 등이다. 11월 9일에는 남원의 도시재생 지역과 문화 탐방도 병행한다.

'생통교육'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관련된 요소를 지역민 삶의 중심에 두는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마을과 문화, 폴리와 문화, 전통시장과 문화 등을 주제로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탐구하는 시민강좌 프로그램이다.

한편, 광주문화도시협의회는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사)윤상원기념사업회 등 광주지역 문화예술단체 12개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강좌 수강 인원은 선착순 40명으로 희망자는 19일까지 전화 (062-234-2727)로 접수하면 된다. 수강료는 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내일 '광주영화페스티벌' 컨퍼런스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이사 윤수안)가 오는 18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에서 '2018 광주영화페스티벌'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컨퍼런스를 진행한다. 광주독립영화협회, 광주독립영화제, 광주여성영화제 등 광주지역 영화단체가 모인 이 단체는 오는 18일부터 12월9일까지 세 번째 광주영화페스티벌을 진행한다. 먼저 첫 행사로 18일 '광주영화 도약을 위한 컨퍼런스'를 열고 지역 영화의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전병원 동의대 영화 트랜스미디어 연구원이 '지방분권시대 지역영화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뒤 이순학 문화콘텐츠그룹 잇다 대표가 '광주영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영화 프로그램과 플랫폼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문의 062-531-1895.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